

속어표현에 대하여

韓 貞 吉

0. 속어구문(*expression figée, idiomatique*)은 일반적으로 전체문법현상 내에서 예외적 사실로서 간주되어 왔다. 속어구문의 예외성은 일차적으로는, 속어구문에서의 의미해석이 非속어구문, 즉 自由文(*phrase libre*)의 의미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해석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문구조상 속어문은 자유문과는 相異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유문에 있어서 가능한 여러 문법변형에 대해 색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통사적 특징의 측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어휘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어휘의 대치 및 수식으로 인한 자유문의 무한한 생성가능성에 비해, 다시 말해 자유문이 개방목록(*liste ouverte*)을 이루는 반면 속어구문들은 폐쇄 목록(*liste fermée*)을 이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 점에서 문법현상 중 주변적(*marginal*)인 분야로 간주되었다.

본고에서는 현대불어의 속어구문을 특히 문장단위의 테두리에서 살펴보고, 속어문들이 과연 자유문과 구별될 만한 예외적 현상인가, 속어문과 자유문을 구별해내는 통사적 형식기준(*critère formel*)이 존재가능한가, 간단히 말해 속어구문의 표지(*marque d'idiomaticité*)란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0. 정의기준

일반적으로 속어문의 정의는 <의미의 예측불가능> 및 <형태의 고정성>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Gross(1982)의 “속어문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의미는 해당 속어문 전체의 의미해석에 기여하지 않는다”라든가 Ruwet(1982)의 “속어문의 의미해석은 구성요소들의 의미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속어문에서의 의미의 예측불가능을 지적한 것이다.

자유문의 의미해석이 해당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 어휘들의 의미와 그 어휘들이 이루고 있는 문법관계의 함수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1) a. Le chat tue le rat.

b. Le rat tue le chat.

라는 두 문장의 의미는 세부사항을 생략한다면 chat(고양이), rat(쥐), tuer(죽이다)라는 세 어휘의 의미와 이들 간의 문법관계—즉 (1a)에서는 chat가 문장의 주어, rat가 목적어 구실을 하며, (1b)에서는 rat가 문장주어, chat가 목적어 구실을 하는 등의 문법관계—와 이 둘의 함수관계에 의해 (1a)와 (1b)는 각각 “/고양이가 쥐를 죽인다/”, “쥐가 고양이를 죽인다/”의 의미해석을 받는다.

반면 속어문은 자유문에 사용되는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유문에서와는 달리 문장의 의미해석을 구성어휘들의 의미에서부터 유도해낼 수 없다. 가령

(2) Max tue le veau gras.

라는 문장은, tuer, veau gras(기름진 송아지)등이 본래의 어휘적 의미로 쓰인 “/Max가 살찐 (그) 송아지를 죽인다/”라는 자유문으로서의 해석과 “/Max는 진수성찬을 차린다/”라는 두가지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죽다”라든가 “살찐 송아지”라는 어휘적 의미의 단순한 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¹ 두 번째 해석으로서의 (2)文은 속어문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동일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속어문에서는 자유문에서와는 다른 의미해석이 내려진다.

한편, 속어문의 <형태의 고정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과 같은 자유문의 경우

(3) Max a mangé une pomme. (Max는 사과를 먹었다)

manger의 목적어 위치에는 pomme 외에도 딱딱한 음식물로서 먹을 수 있는 대상물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4) Max a mangé (une pomme+un gâteau+une banane+etc.). (Max는 (사과+과자+바나나)를 먹었다)

¹ 어느 정도 비유적인(métaphorique)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외국어가 그 대상어인 경우는 그에 대응되는 표현이 모국어에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가령 suer sang et eau(피나는 노력을 하다)나 lécher (les pieds+le cul) de qn(∼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다) 등의 속어문은 속어문이라는 하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 쉽게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한국어에 동일한 의미의 어휘로 구성된 ‘피땀을 흘리다’, ‘∼의 발바닥까지 핥다’ 등의 속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avaler un parapluie라는 속어문장을 대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해석은 한국어식으로(삼키다→훔치다) 해석한 “우산을 떼어 먹다”라는 그릇된 해석이었다.

즉, 자유문에서는 의미선택제약특질에 적합한 어휘요소는 모두 대치가 가능하며, 대치된 문장의 의미는 그 대치된 어휘의 어휘적 의미 만큼의 변화가 생긴다.

반면 속어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어휘들의 다른 어휘로의 대치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대치가 일어나면 속어문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자유문으로서의 의미 밖에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5) Max a mangé la grenouille. (Max는 공금을 착복했다)

라는 속어문에서는 목적어 위치에 grenouille 대신 어느 다른 어휘도 대치시킬 수 없다. 만약 une pomme가 대치된다면 이 문장은 더 이상 속어문으로서의 해석을 받지 못하고 원래 자유문에서의 “...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일부대치가 가능한 경우라 해도 다음 (6), (7) 문장들 쌍에서 볼 수 있듯이 속어문인 (7)에서는 자유문 (6)과는 달리 대치된 문장에서의 의미 변화를 바꾼 어휘의 어휘적 의미에 곧바로 관련지을 수 없다.

(6) Luc boit (de l'eau+du vin). (Luc는 (물+술)을 마신다)

(7) Luc est entre deux(eaux+vins). (Luc는 망설이고 있다+Luc는 술 취했다)

이처럼 어떤 문장이 어떠한 분포상의 변이(variation distributionnelle)도 허용치 않거나(distribution unique), 변이가 허용된 어휘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러한 문장을 속어문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속어문에서의 <형태의 고정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속어문에서의 ‘대치불가능’은 각 속어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² 유일한 또는 제한된 분포(distribution unique ou restreinte)라는 것을 속어문의 명시적 정의기준으로 삼기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대치불가능’을 자유문에서의 자유로운 대치와의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³

한편, 앞서 지적한 속어문의 독특한 의미해석은 통사적 측면에서의 제한된 결합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속어문으로서의 해석은 어느 일정한 어

² 기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distribution unique를 보이는 속어문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Max (tend+dresse+tire) l'oreille de qn(…을 친밀하게 잴하다)

Max lèche (les bottes+les pieds+les genoux+le cul) de qn(∼에게 비굴하게 아첨하다)

Max brûle (le pavé+la route) (전속력으로 달리다)

Max passe la main dans (le dos+les cheveux) à qn(∼에게 아첨하다)

³ Ruwet(1982) 참조.

휘와의 결합에 있어서만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속어문의 결정은 의미 기준에 의해서만, 혹은 통사기준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기준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다음은 흔히 속어문으로 취급되는 문장들이다.⁵

- (8) a. Il n'y a pas de fumée sans feu. (아니뎌 굴뚝에 연기나랏)
- b. Qui vole un œuf vole un bœuf.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된다)
- (9) a. Il y a anguille sous roche. (좀 수상하군)
- b. Le sort en est jeté. (어쩔수 없는 일이다)
- (10) a. Il a foutu le camp. (그는 도망쳤다)
- b. Quel bon vent vous amène? (무슨 바람이 불어 이렇게 오셨소?)
- (11) a. Pierre a passé un savon à Marie. (Pierre는 Marie를 심하게 꾸짖었다)
- b. Ce travail fait suer Marie. (이 일은 Marie를 진절머리나게 한다)
- (12) a. J'en ai marre de cette affaire. (이 일이 지긋지긋하다)
- b. Max prend la poudre d'escampette. (Max가 뺑소니친다)
- (13) a. Pierre hoche la tête. (Pierre가 고개를 끄덕인다)
- b. Pierre cligne(de l'œil+des yeux). (Pierre가 눈을 깜빡인다)
- c. Pierre apure un compte. (Pierre가 회계를 감사한다)

(8)문들은 격언(proverbe)으로 간주되는 문장들이고 (9)의 문장들은 문장 요소 중 어느 요소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⁶ 화석화(figement)의 정도가 가장 큰 문장들이다. (10)文들은 문장구성요소 중 주어((10a)의 경우) 혹은 목적어((10b) 경우) 등의 한 argument의 위치가 자유로운 문장들이고, (11)은 변화가능한 두 arguments(주어, 직접 혹은 간접 목적보어)을 취하고 있다. (9~11)의 문장들이 자유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자유문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해석을 받는, 일차적으로 의미기준에 의한 속어문들이라면, (12~13)문장들은 어휘의 변이(variation)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속어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예들이다. (12)에서는 marre나 escampette가 각각 해당속어구문에서만 쓰이는 어휘라는 점에서 속어문으로

⁴ "On la définit comme «une expression constituée par l'union de plusieurs mots formant une unité syntaxique et lexicologique»" P. Guiraud(1961).

⁵ 속어구문은 cul-de-sac(막다른 골목), pis-aller(부득이한 수단)등의 복합명사구, à la Saint-Glinglin(언제까지나) 같은 전치사구, Bouche cousue!(입 닥쳐!)등의 감탄사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⁶ 단 시제(temps), 법(mode) 등의 변화는 가능하다. (8)과 (9)의 문장들은 전체가 화석화되었다는(entièrement figée) 점에서는 동일하나, 크게 "총칭적(générique)/특정(spécifique)"라는 의미 차이를 갖는다.

간주되며, (13)에서는 *la tête, de l'œil(des yeux), un compte* 등이 각각 “머리, 눈, 회계”라는 자유문에서의 어휘적 의미를 갖지만 *hocher, cligner, apurer*라는 동사가 이들 명사와만 나타난다는 동사에서의 변이의 제약때문에 숙어문으로 간주된다.

1.1. 이같은 의미·통사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숙어문은 편의상 의미상의 숙어문(*expression figée sémantique*)(이하 EFsém로 약함)과 통사적 숙어문(*expression figée syntaxique*)(이하 EFsyn로 약함)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구문구조상으로는 자유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그 의미해석이 달리 이루어지는 숙어문을 지칭하고, 후자는 숙어문이 구문구조상 자유문과는 다른 구조를 취할 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14) a. Il a rendu justice à Jean. (그는 Jean이 옳다고 했다)

b. Il a promis monts et merveilles. (그는 실현불가능한 것을 약속했다)

의 문장에서, 명사 *justice*나 *monts et merveilles* 등은 명사가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한정사(*déterminant*)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통사구조상 자유문과 다른 통사적 특이성(*idiosyncrasie syntaxique*)을 보일 때의 숙어문을 EFsyn라 하자. 한편

(15) a. Pierre a cassé sa pipe. (Pierre는 죽었다)

b. Il a brisé la glace. (그가 어려운 분위기를 해소시켰다)

등은 통사구조상으로는 완전히 자유문에서의 正文의 구조를 갖지만 의미해석이 자유문과 달리 이루어지는 EFsém이다. 이 두 구분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EFsyn이면서 EFsém인 숙어문도 있고(例: *J'ai maille à partir avec Max*(나는 Max와 사이가 틀어졌다)), EFsém라 해도 그 의미해석의 불투명성(*opacité*)은 정도차이가 많다. 가령 *foutre le camp*(도망가다), *chercher midi à quatorze heures*(사서 고생하다)의 의미는 완전히 불투명(*opaque*)한 반면, *faire suer qn*(귀찮게 하다)이나 *promettre monts et merveilles* 등은 의미가 다소 투명(*transparent*)하다.⁷

1.2. 지금까지 숙어문들은 숙어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었다기보다 자유문들간에 존재하는 문법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로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6) a. Pierre a rendu justice à Jo.

b. Le premier ministre a promis monts et merveilles.

⁷ Ruwet (1982), 주1 참조.

에는 붙어 일반특징에 비추어 예의 현상인 한정사없는 명사구가 등장하는데, 다음의 (17)예문에도 동일한 명사구가 한정사없이 나타나며, (16)과 (17)의 a-b 문장쌍은 의미가 동일하다.

(17) a. Justice a été rendue à Jo par Pierre.

b. Monts et merveilles ont été promis par le premier ministre.

이처럼 (16)문에서의 verbe-objet 간에 나타나는 통사적 예외현상이 (17)과 같은 다른 표면구조에서 sujet-verbe간에 발견되며, 또 동의인 어휘를 대치하였을 경우 속어문으로서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제약을 동일하게 보일 때, 이들 문장쌍들간의 동일한 엄밀하위범주 제약(restriction de sous-catégorisation stricte) 및 의미선택제약(restriction de sélection sémantique)을 1회 기술에 국한하여 문법기술의 경제성을 피하자면 표면구조가 다른 이 문장쌍 쌍을 변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지음이 타당할 것이다. 즉, (17a), (17b)는 각각 (16a), (16b)에 수동변형을 적용하여 얻어진 문장들이며, 마찬가지로 논리로 (18b)는 (18a)에서부터 목적어의 주어위치에로의 상승(Montée de l'objet en position sujet) 변형의 결과로 얻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18) a. Il est toujours très facile de laver le linge sale en famille. (집안의 수치를 밖에 소문내지 않기는 언제나 대단히 쉬운 일이다)

b. Le linge sale est toujours très facile à laver en famille.

결국 (16~18) 속어문에서의 의미·통사 분포제약은 문법기술에서 수동(Passif), 주어 상승(Montée du sujet en position objet(ou sujet)), 목적어 상승(Montée de l'objet en position sujet) 등의 이동변형의 근거를 입증하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시 말하자면, 속어문의 통사적, 의미적 예외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러한 예외 현상이 몇몇 구문 유형들간에 동일하게 나타날 때 이는 이들 구문 간에 어떤 문법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의미 측면의 예외성은 개개인에 따라 불투명성(opacité)의 정도차가 생길 수 있는 비명시적 기준인 까닭에 언어학사에서 이동변형의 논거로서 사용된 것은 통사적 예외현상, 그 중에서도 특히 한정사의 생략현상이었다.⁸ 그런데 속어문에서는 이미 지적한 한정사의 생략, 분포상의 제약 외에도 다음의 통사적 특이성들이 발견된다.

⁸ Kayne (1975) 참조.

1. 2. 1. 통사구조상의 특이성

a) 한정사의 생략

현대 불어에서 명사는 한정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일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숙어문의 경우 이 제약이 지켜지지 않는 예들이 많다 :

- (19) a. *Pierre qui roule n'amasse pas mousse.*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b. *Noblesse oblige.* (양반은 양반답게 처신해야 한다)
 c. *Il a prêté assistance à Jean.* (그는 Jean을 도와주었다)

b) 어순

i. 일반단문(*phrase simple*)에서 목적보어 명사구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

- (20) *Pierre a battu le tambour.* (*Pierre*는 북을 쳤다)

다음의 숙어구문에서는 목적보어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동사에 선행하여 있다 :

- (21) a. *sans bourse délier*(공짜로)
 b. *tambour battant*(요란하게)
chemin faisant(길을 가다가)
à son corps défendant(마지못해)

ii. 불어에서는 동사가 직접, 간접의 두 개 목적보어 명사구를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보어가 간접보어에 선행한다. 단, 직접보어가 간접보어보다 상대적으로 긴 경우에는 간접보어가 직접보어에 선행할 수 있다.

- (22) a. *Max a présenté cet homme à Marie.* (*Max*는 그 남자를 *Marie*에게 소개했다)
 b. ? *Max a présenté à Marie cet homme*⁹.
 c. *Max a présenté à Marie une très jolie Allemande.* (*Max*는 *Marie*에게 아주 예쁜 독일 여자를 소개했다)

그런데, 숙어문 (23a)에서는 간접보어에 해당하는 *d'une pierre*가 직접보어인 *deux coups*보다 선행하고 있으며 ;

⁹ ? 표시는 좌우 문맥을 고려치 않은(*contexte neutre*) 경우이다. 실제 담화(*discours*) 상에서는 대조적 강세(*accent contrastif*) 등의 여러 장치를 통하여 부자연스러움을 없앨 수 있다.

(23) a. Max a fait d'une pierre deux coups. (Max는 일석에 이조를 얻었다)

b. *Max a fait deux coups d'une pierre.

자유문에서의 正順인 직접-간접보어 順의 b문은 非文이다. 간접보어의 길이가 직접보어보다 긴 (24)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볼 수 있다:

(24) a. Marie fait contre mauvaise fortune bon cœur. (Marie는 역경에 처해서 기운을 잃지 않는다)

b. *Marie fait bon cœur contre mauvaise fortune.

c) 특이구조

문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유문의 정상적인 구조와는 판이한 구조를 갖는 속어문 例들이 있다:

(25) a. Libre à Max de partir. (떠나든 안 떠나든 Max 마음대로이다)

b. Force lui est de partir. (그는 떠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1.2.2. 속어문에서의 verbe-objet 결합은 의미선택제약에 따르지 않는다:

(26) a. Max a (cassé+brisé+rompu) (son vase+sa pipe+etc.). (Max는 (병+담뱃대+etc)를 (깨뜨렸다+부수었다))

b. Max a (cassé+*brisé+*rompu) (sa pipe+*son brûle-gueule+*son fume-cigarette+*sa bouffarde)). (Max가 죽었다)

자유문 (26a)에서는 casser나 sa pipe대신 이와 분포적으로 유사한 어휘들을 대치하여도 正文이나, 속어문 (26b)의 경우는 대치가 불가능하다.¹⁰ 대치의 제약은 보다 작은 문법단위인 한정사 단계에서도 나타나며:

(27) a. Max a cassé (sa+*ma+*cette+*la+*une) pipe.

b. Max a mangé (la+*une+*cette) grenouille.

어떤 속어문에서는 수의 변화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28) a. Max a mangé (la+*les+*deux+...) grenouille(s).

b. Luc est dans (la+*les) lune. (Luc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다)

c. Luc est dans (*le+les) nuages. (Luc는 멍하니 있다)

¹⁰ 마찬가지로

i) (lancer+jeter) un morceau de craie à qn(~에게 분필 조각을 던지다)

ii) lancer (un regard+*des yeux) à qn (~을 쳐다보다)

iii) jeter (un regard+des yeux) sur un document(서류를 힐끗 보다)

등은 의미선택제약에 따른 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본포의 자의성 (arbitrarité distributionnelle)은 상이한 두 언어에 있어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숙어문을 비교해 보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

miss *the bus/rater le coche*(좋은 기회를 놓치다)

beat around the bush/tourner autour du pot(말을 던지시 돌려서하다)

take *the floor/prendre la parole* (발언하다)

take *French leave/filer à l'anglaise*(인사도 없이 떠나가다)

1. 2. 3. 통사작용상의 특이성

a) 수식의 제약

자유문의 경우 일반명사구는 의미상 모순이 생기지 않는 한 다양한 수식어를 취할 수 있다.

- (29) Max a cassé le vase (bleu+que Marie lui a donné+de Pierre+ etc.). (Max는 (푸른+Marie가 준+Pierre의) 병을 깨뜨렸다)

그런데 대부분 숙어문의 경우는 이러한 수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 (30) Max a cassé (sa pipe+*sa propre pipe+*sa vieille pipe+*la pipe
자신의 담뱃대 낡은 담뱃대
que le seigneur lui a donnée).
신이 그에게 준 담뱃대

반면 수식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숙어문도 있다 :

- (31) Cette tenue est de (*E+bon+mauvais) goût.
(이 복장은 보기 (좋다+흉하다))

b) 등위구의 생략, 도치

자유문의 경우 동일 문법기능을 하는 문법요소들이 등위된 등위구는 등위요소들 간의 자리바꿈이 가능하며 (cf. (32b)), 그 중 한 요소를 생략하여도 正文이다 (cf. (32c)):

- (32) a. Max a acheté un livre et un cahier. (Max는 책과 공책을 샀다)
b. Max a acheté un cahier et un livre. (Max는 공책과 책을 샀다)
c. Max a acheté (un livre+un cahier). (Max는 (책+공책)을 샀다)

반면 숙어문이 등위구를 가질 경우에는 등위구에서의 생략 또는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

- (33) a. Max a promis monts et merveilles. (Max는 실현불가능한 것을 약속했다)
b. *Max a promis merveilles et monts.

c. *Max a promis (monts+merveilles).

(34) a. Cette ville est à feu et à sang. (이 도시는 兵火와 유혈의 도가
니 상태다)

b. *Cette ville est à sang et à feu.

c. *Cette ville est (à feu+à sang).

c) 중성대명사

자유문에서는 동일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반복되는 명사구 대신 적합한 대명사를 사용하며, 따라서 자유문에 사용된 대명사는 좌우 문맥 또는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대신하는 원래의 명사구로 환원시킬 수 있다:

(35) J'ai acheté un livre. J'*en* ai déjà lu la moitié(en=de ce livre):

(나는 책을 한 권 샀다. 벌써 반을 읽었다)

그런데 속어문에 나타나는 대명사는 대부분 명사구로 환원시킬 수 없다:¹¹

(36) a. Le sort *en* est jeté.

b. *Le sort de (les choses+N) est jeté.

(37) a. Le jeu n'*en* vaut pas la chandelle. (해보았자 헛수고다)

b. *Le jeu ne vaut pas la chandelle de (cette affaire+N).

(38) J'*en* ai entendu des vertes et de pas mûres. (의설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1.3. 그런데 Gross에 따르면 8,000여개 속어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앞서 지적한 통사적 특이성을 보이는 속어문의 例는 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 속어문의 경우에도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자유문과 같이 주어-동사-직접목적보어-간접목적보어 順의 $N_0 V N_1 (Prép)N_2$ 이며;

(39) Pierre a rendu son âme à Dieu. (Pierre가 죽었다)

(40) Marie a jeté de la poudre aux yeux. (Marie가 눈을 속였다)

(41) Marie a pris le taureau par les cornes. (Marie는 정면으로 난국에
대결했다)

위 예들에서 보듯이 대부분 명사는 한정사를 수반한다. 이동변형의 논거

¹¹ 어떤 특정 단어를 대신한 듯한 속어문의 대명사도 있다.

les mettre (les=les bouts), la connaître (la=la musique), la ferme! (la=ta gueule)

또한 Il nous casse (les pieds+les couilles+les burettes)라는 속어문에 대명사를 사용한 Il nous les casse라는 문장에서 les는 les couilles나 les burettes를 대신할 수는 있으나, 결코 les pieds의 대명사로 인식될 수 없다.

로 인용된 한정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예들은 극히 제한된 일정 문장들이며,¹² 게다가 그 문장들 중에는 한정사 생략이 수의적인(facultatif) 경우가 많다:

- (42) rendre (la) justice(옳다고 하다), imposer (le) silence(침묵시키다),
promettre des monts et (des) merveilles

또 그냥은 한정사 없이 나타나는 숙어문이라도 형용사 수식어를 취하면 한정사를 다시 취한다:

- (43) a. Il a pris (*cette+*la) part à ces débats. (그는 이 토론에 참가했다)
b. Il a pris (une part (active+importante)+la part la meilleure) à ces débats.

이처럼 숙어문과 관련하여 지적된 통사구조상의 특이성이란 숙어문 정체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예의 현상에 속하며 이러한 사실은 몇몇 예문에 입각한 이론설정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론화에 앞선 광범위한 실재자료 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숙어문이 *expression figée* 또는 *phrase figée*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화석화(figement)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유문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이한 특성을 지니는 문장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며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숙어문에서의 변이 가능성을 접할 때 더욱 타당성있게 느껴진다.

화석화된 숙어문에도 의미상 모순이 없는 한 부사어구를 자유로이 삽입할 수 있다:

- (44) a. Tu casseras *aussi* ta pipe un jour. (너도 언젠가는 죽겠지).
b. L'ennemi a foutu *immédiatement* le camp. (적은 곧 도망쳤다).

이러한 부사어구의 삽입은 문장 전체가 화석화된 것으로 지적되는 숙어문이나 격언 등에서도 가능하다:

¹² 일례로 사역구문과 관련하여, faire...par 구문이 수동문장 형성이 가능한 문장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Kayne(1975)이 사용한 숙어문은 *prêter assistance*, *porter plainte*, *casser la croûte*, *faire le malade* 등의 몇몇 숙어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 i) Il te fera *prêter assistance* par son fils. (그는 아들에게 너를 돕게 할 것이다)
ii) L'avocat fera *porter plainte* par son client. (변호사는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iii) *Il a fait *casser la croûte* par sa famille. (그는 가족들에게 간단히 요기하게 했다)
iv) *Il fera *faire le malade* par son fils. (그는 아들에게 피병부리게 할 것이다)

- (45) a. Les carottes, avec Max, sont toujours cuites. (Max와 함께 있으면 항상 일을 그르친다)
 b. Tous les chemins menaient, à ce temps-là, à Rome.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었는데)

자유문의 경우 부사어구의 삽입은 문법기능단위의 경계상에서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① N₀ ② V ③ N_i ④ Prép N₂ ⑤의 구조에서 ①~⑤의 위치에는 부사어구의 삽입이 가능하지만 가령 Dét(한정사)와 N의 사이 또는 전치사와 N 사이에는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46) Max achètera un jour le chapeau de Marie. (Max는 언젠가 Marie의 모자를 살 것이다)

마찬가지로 속어문에서의 부사어구 삽입 역시 문법기능단위의 경계상에서만 허용된다:

- (47) Cette vente mettra toujours du beurre dans les épinards de Pierre. (이 판매가 늘 Pierre의 형편을 낫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속어문에서도 시제 (temps), 법 (mode), 인칭 등의 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대개 언어문맥에 따른 일치규칙 (conditions de concordance)에 의한다:

- (48) a. Je crains que Max n'ait cassé sa pipe. (나는 Max가 죽지 않았나 염려된다)
 b. Quand Max arrivera, les carottes seront cuites. (Max가 도착하면 일은 끝장날 것이다)
 c. Nous casserons un jour ou l'autre notre pipe.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

2. 속어문은 1에서 언급된 통사 구조면 외에도 수동화, 분열문 형성 (Extraction) 같은 통사적 문법 변형에 대해서도 예외적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령

- (49) a. L'ennemi a foutu le camp.
 b. Max a cassé sa pipe.

는 구문구조상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타동사문이지만 수동변형이 적용될 수

없다:

- (50) a. *Le camp a été foutu par l'ennemi.
b. *Sa pipe a été cassée par Max.

속어문에서의 이러한 문법변형 적용상의 제약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해당 속어문에 [+Idiom]이라는 표지를 부여하여 변형적용에 대한 차단(blocage)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쳤을 뿐이다. 이제 Extraction, Passif 등의 변형을 중심으로 속어문이 보이는 반응이 “속어문”임으로 인한 예외적인 반응인가를 살펴보자.

2.1. Extraction

- (51) a. Max a cassé sa pipe.
b. Max a pris le taureau par les cornes. (Max는 정면으로 난국에 대결했다)

이 두 속어문은 목적보어에 해당하는 명사구 sa pipe나 le taureau를 초점화하여 c'est...que 형식의 分裂文(phrase clivée)을 만들 수 없다:

- (52) a. *C'est sa pipe que Max a cassée.
b. *C'est le taureau que Max a pris par les cornes.

반면 자유문 (53)에서는 Extraction이 가능하다:

- (53) a. Max a mangé son gâteau.
b. C'est son gâteau que Max a mangé.

그렇다면 이것은 속어문의 예외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인가?

Extraction이란 문장의 어느 한 구성요소를 초점화하여 강조하는 문법변형으로서, 반드시 해당 문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동일 문맥 내에 나타날 수 있는, 대조되는 한 GN을 제외하고는 同一한 두 문장의 등위문 구조에 적용된다. 다시 말하자면 (53b)文은 표면구조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 Max n'a pas mangé sa pomme(P_1); Max a mangé son gâteau(P_2)
(Max는 사과를 먹지 않았다(P_1); Max는 과자를 먹었다(P_2))

와 같은 대조되는 명사구 sa pomme, son gâteau를 포함하는 등위문 구조에 Extraction이 적용된

Max n'a pas mangé sa pomme; c'est son gâteau que Max a mangé.

에서 P_1 이 생략된 문장이다. 이처럼 Extraction의 적용 가능 여부는 변이가

능한 대조적 어휘요소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속어문 (51)에서는 속어문이 나타나고 있는 고유어의 의미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casser*나 *prendre*의 보어로써 *sa pipe*, *le taureau*대신 대치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휘도 생각할 수 없다. 결국 분포적으로 유사한 대조되는 두 개의 GN을 갖지 못하는 (51)문장에는 *Extraction*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54) a. C'est le taureau de la sémantique qu'il a pris par les cornes de la syntaxe.

b. C'est sur mes brisées que tu marches.

(55) a. Il a pris le taureau de la sémantique par les cornes de la syntaxe. (그는 통사론으로써 의미론의 난제를 해결했다)

b. Tu marches sur mes brisées. (너는 나와 경쟁한다)

에서 (54a, b)가 속어문(55a, b)에 *Extraction*이 적용되어 나온 정문(正文) *phrases clivées*라는 것은, 문장의 의미상 초점이 소유형용사 *mes*나 명사 수식어구인 *de la sémantique*에 주어지고,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는

(56) a. Il a pris le taureau de (la sémantique+l'économie) par les cornes (de la syntaxe+de la politique)

b. Tu marches sur(mes brisées+les brisées de(Luc+son père+etc.))

등과 같이 대조되는 요소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미 초점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문체론적 조작(*procédé stylistique*)이 사용된 문장은 *phrase clivée* 형성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서 (57a)문은 성립되지 못하나 수식어구가 사용된 (57b)文은 정문이다.

(57) a. *C'est bataille que Napoléon a livrée aux Prussiens.¹³

b. C'est une vraie bataille rangée que Napoléon a livrée aux Prussiens. (Napoléon이 프러시아 군대에 도전한 것은 정정당당한 진정한 싸움이었다)

2.2. Passif

수동문에 대해서는 능동문—수동문의 관계를 변형으로 설명할 것인가, 잉여규칙 혹은 의미해석규칙으로 설명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문이

¹³ *livrer bataille*(도전하다) 외에 *livrer combat*도 있으나 *bataille*(전쟁)와 *combat*는 거의 同意로서 대조되는 두 어휘의 구실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D-structure에서 나오는가 등에 관해 기술적인 논란이 많이 되어왔는데 여기서는 본고와 무관한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단지 수동문과 능동문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58a)와 같은 타동사 능동문은¹⁴ 수동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를 우선 받아들이자 :

- (58) a. Max a acheté cette robe. (Max는 그 옷을 샀다)
b. Cette robe a été achetée par Max.

그런데 앞서 인용된 (49b) Max a cassé sa pipe라는 속어문은 구문구조상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타동사 구문이나 이에 대응되는 수동문 형성이 불가능하다 :

- (59) a. *Sa pipe a été cassée par Max.
b. *La pipe a été cassée par Max.
c. *La pipe de Max a été cassée.

이러한 수동문 형성의 제약은 “속어문”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rendre justice, prendre contact, donner le coup de grâce 등의 속어구문들에서는 수동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 (60) a. Justice a été rendue à Jo par Pierre. (Pierre는 Jo가 옳다고 했다)
b. Contact a été pris par Henri avec les collègues. (Henri는 동료들과 접촉했다)
c. Le coup de grâce a été donné à Marie. (Marie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49b)文을 살펴보면, (49b)문장에서의 직접목적보어 구실을 하는 sa pipe의 소유형용사 sa는 반드시 주어인 Max와 공지시적(coréférent)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a pipe는 반드시 Max의 pipe로만 해석되며, 따라서 이 속어문에서는 한정사의 변이가 허용되지 않는다 :

- (61) Max a cassé (*ma+*ta+sa+*notre+...) pipe (*+de Luc)

자유문의 경우에도, 주어와 목적보어 간에 이러한 coréférence 제약을 보이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

- (62) Anne a levé le bras droit. (Anne는 오른팔을 들었다)

¹⁴ 간접타동사 중에서도 obéir à, pardonner à 등의 구문은 수동문이 가능하다.

자유문의 경우, 해당 목적보어가 주어의 신체 혹은 영혼, 정신 등의 양도불가능한 소유물(propriété inaliénable)을 나타낼 때 이 목적보어와 주어간에는 필연적으로 coréférence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coréférence관계가 있는 (62)같은 자유문의 경우 역시 수동문 형성이 불가능하다:

(63) *Le bras droit a été levé par Anne.

한편 표면구조 상에 소유형용사가 드러나 있는

(64) a. Max_i a mangé sa_{i,j} pomme. (Max는 그의 사과를 먹었다)

b. Sa_i pomme a été mangée par Max_j.

라는 문장 쌍에서, 능동문인 (64a)에서의 sa는 Max에 coréférent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64b) 수동문에서의 sa는 절대로 Max에 coréférent한 해석(Sa pomme=Max의 사과)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주어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독자성(autonomie)을 갖지 못하는 목적보어, 즉 반드시 주어에 coréférent한 목적보어는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없다. 자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49b) 속어문의 수동문 형성의 제약은 목적보어와 주어 간의 필수적 공지시 제약(coréférence obligatoire) 때문으로 설명되며, 따라서 수동문이 불가능한 속어문 예들에서 목적보어로 신체부위나 영혼에 관계되는 어휘가 많이 등장함은 우연이 아니다:¹⁵

(65) a. Max_i rongea son_i frein. (Max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b. *Son frein était rongé par Max.

(66) a. Paul_i a mis les pouces_i. (Paul은 항복했다)

b. *Les pouces ont été mis par Paul.

때로는 직접목적보어와 간접목적보어 간에 coréférence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자유문(cf. (67)), 속어문(cf. (68))에 무관하게 수동문 형성에 제약을 받는다:

(67) a. Pierre a caressé la joue à Marie. (Pierre는 Marie의 뺨을 어루만졌다)

b. ??* La joue a été caressée à Marie par Pierre.

(68) a. Le Président a serré la pince à Max. (대통령은 Max와 악수했다)

b. ??* La pince a été serrée à Max par le Président.

¹⁵ 이밖에도 prendre son temps(천천히 여유를 갖고 일을 하다), perdre la tête(이성을 잃다), perdre son sang-froid(냉정을 잃다) 등 유사한 예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coréférence를 보이지 않는 다음 속어문은 수동문이 가능하다 :

- (69) a. Ce malheur a brisé le cœur de Marie. (그 불행은 Marie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b. Le cœur de Marie a été brisé par ce malheur.

속어문에서의 수동문 제약이 다 이 coréférence 관계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例文을 보자.

- (70) a. Max a tenu le crachoir toute la soirée. (Max는 저녁내내 혼자
 만 떠들었다)
 b. ?? Le crachoir a été tenu par Max toute la soirée.

(70)文의 crachoir와 Max 간에는 coréférence obligatoire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동문 (70b)는 비문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유문의 경우에도 coréférence 제약이 없는 한 모든 타동문에 있어서 수동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수동문이 불가능한 자유문의 例를 살펴보자.

- (71) a. Nicolas habite le 11^e arrondissement. (Nicolas는 11구에 산다)
 b. *Le 11^e arrondissement est habité par Nicolas.
(72) a. Paul a quitté Paris. (Paul은 Paris를 떠났다)
 b. *? Paris a été quitté par Paul.

이 문장들은 모두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타동문들로서, 목적보어와 주어간에 coréférence 제약이 없으나 수동문을 갖지 못한다. 주목할 것은 이 문장들에서의 직접목적보어는 장소구(locatif)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71, 72)는 “대다수”의 의미를 갖는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로 오면 수동문 형성이 가능하다 :

- (73) a. Un grand nombre d'étrangers habitent le 11^e arrondissement.
 (많은 외국인이 11구에 산다)
 b. Le 11^e arrondissement est habité par un grand nombre d'étrangers.
(74) a. Tous ces habitants ont quitté Paris. (모든 주민들이 Paris를
 떠났다)
 b. Paris a été quitté par tous ces habitants.

이와 마찬가지로 수동문이 불가능하던 속어문 (70)도 주어로 다수 의미의 명사구가 등장하면 수동문을 허용한다 :

- (75) a. A la Chambre, les députés de l'opposition ont tenu le crachoir pendant des semaines. (의회에서 몇주동안 반대파 의원들만 떠들어 댔다)
 b. A la Chambre, pendant des semaines le crachoir a été tenu par les députés de l'opposition.

다음 속어문의 수동문 형성 가능 여부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인다.

- (76) a. Max a raté le coche. (Max가 호기를 놓쳤다)
 b. ?? Le coche a été raté par Max.
 c. Dans ces circonstances, tous les participants ont raté le coche.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호기를 놓쳤다)
 d. Dans ces circonstances, le coche a été raté par tous les participants.¹⁶

결국 목적보어가 "locatif"의 가치를 가질 경우, 능동문의 주어로 제시된 명사구가 목적어가 가르키는 대상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때만 수동문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문장쌍들에서의 수동문 형성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77) a. Pierre a pris ce taxi. (Pierre가 그 택시를 탔다)
 b. Ce taxi a été pris par Pierre.
 (78) a. Raymond a pris l'autobus. (Raymond은 버스를 탔다)
 b. ??* L'autobus a été pris par Raymond.
 c. L'autobus S a été pris aujourd'hui par plus de 2,000 voyageurs. (오늘 2,000명 이상의 승객이 S 버스를 탔다)

한편 다음의 例文을 보자.

- (79) a. *La croûte sera cassée par Luc. (Luc는 간단히 요기를 할 것이다)
 b. *Le camp a été foutu par l'ennemi. (적이 도망쳤다)
 (80) a. La glace a été brisée par Pierre. (Pierre가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시켰다)
 b. Justice a été rendue à Jo par Pierre.
 c. Le coup de grâce a été donné au condamné.

¹⁶ 재미있는 것은 이들 목적보어가 속어문에서 고유의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문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고유의 어휘적 의미가 고려대상아 된다는 사실이다. (cf. le coche: 마차)

등에서의 수동문 제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속어문의 구조는 일반 자유문과 마찬가지로 N_0 (주어)-V(동사)-(N₁)(직접목적보어)-(Prép)(N₂)(간접목적보어) 등의 문법기능단위로 분석할 수 있으며;

- (81) a. $\frac{\text{Pierre}}{N_0} \quad \frac{\text{a brisé}}{V} \quad \frac{\text{la glace}}{N_1}$
 b. $\frac{\text{Pierre}}{N_0} \quad \frac{\text{a rendu}}{V} \quad \frac{\text{justice}}{N_1} \quad \frac{\text{à } J_0}{\text{Prép } N_2}$
 c. $\frac{\text{On}}{N_0} \quad \frac{\text{a donné}}{V} \quad \frac{\text{le coup de grâce}}{N_1} \quad \frac{\text{au condamné}}{\text{Prép } N_2}$

각 문법기능단위는 고유한 의미이건, 독특한 속어적 의미이건 간에 나름의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briser(V)-la glace(N₁)(어려운 분위기를 해소시키다)에서 우리는 briser가 dissiper(없애다), faire cesser의 의미를, 그리고 la glace는 la gêne(거북함)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donner(V)-le coup de grâce(N₁)(치명적 타격을 가하다)에서는 donner는 원래의 어휘적 의미(“주다, 가하다”)를 지니는 반면 le coup de grâce는 coup fatal(치명적 타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rendre(V)-justice(N₁)에서의 rendre, justice 등은 각각 원래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속어문의 구성문법단위 각각에 일정한 대응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문법기능단위를 이루는 명사구를 指示的으로 상대적인 독자성(relative autonomie référentielle)을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수동문 형성과 관련하여 “어떤 指示的 독자성(autonomie référentielle)을 갖는 명사구만이 수동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었다.¹⁷ 자유문의 경우에도 非限定 명사구(GN indéfini)가 수동문의 주어로 사용된 (82)같은 문장은 화용론상의 특수한 문맥을 고려치 않는다면 어색하게 들린다.

- (82) a. ?? Une valise a été achetée par Luc. (Luc는 가방 하나를 샀다)
 b. ?? Une Suédoise a été épousée par Max. (Max는 스웨덴 여자와 결혼했다)

¹⁷ Ruwet(1983) 참조. “En fait, c’est sans doute dans la possibilité d’établir ce genre de correspondance, entraînant une relative autonomie des constituants de l’Exi (en particulier, dans les cas considérés, du NP objet), qu’il faut voir la clé du degré de figement des Exis. (...) Le non-figement relatif d’une expression idiomatique tient pour l’essentiel à sa relative transparence à l’interprétation, et à l’autonomie relative de ses constituants. (...) Admettons par exemple, en simplifiant beaucoup, qu’une des conditions de l’acceptabilité d’une phrase passive réside dans une certaine “autonomie référentielle” de son sujet: (...)”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80a-c)의 수동 속어 문장들이 正文인 것은, 주어로 등장한 *la glace*, *justice*, *le coup de grâce* 등이 원래의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거나(*justice*의 경우), 의미에 합당한 다른 어휘적 의미로 환원가능한 지시적 투명성(*transparence référentielle*)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79)의 *casser(V)-la croûte(N_I)*(간단히 요기를 하다), *foutre(V)-le camp(N_I)*(도망치다) 등은 *V-N_I*으로 분석되지만 목적보어에 해당하는 *croûte*나 *le camp*에 어떤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으로 해서, 즉 *transparence référentielle*을 갖지 못하므로 수동문 형성이 불가능하다.¹⁸

2.3. 이상 *Extraction*, *Passif* 변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문법변형 적용상의 제약이 속어문에 나타난다면 이는 “속어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일반 자유문에 걸쳐 모두 적용되는 해당 통사변형 적용상의 일반적 제약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속어문에 [+Idiom] 표지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규칙적용의 제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또한 각 속어문은 각각의 통사변형에 대해 그 반응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casser sa pipe*라는 속어구문은 *Passif*형성, *Extraction*, 관계문 형성 등이 불가능한 반면(**Sa pipe qu'il a cassée était vieille*), *briser la glace* 구문은 관계문 및 *Extraction*은 허용되지 않으나(**La glace qu'il a brisée nous a surpris*, **C'est la glace que Max a brisée*), *Passif* 적용은 가능하며, *promettre(des) monts et merveilles* 구문은 *Passif*, *Extraction*, 관계문 형성이 모두 가능하다(*Monts et merveilles semblent avoir été promis par le premier ministre*, *C'est des monts et merveilles que nous a promis le Président*, *Les monts et merveilles qu'il a promis tardent à se concrétiser*). 이처럼 속어문의 각 변형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 까닭에, 만일 문법변형 적용상의 제약을 [+Idiom] 표지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매 경우마다 달리 기술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유문인가 속어문인가 하는 용법의 차이가 곧 문법변형 적용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손쉬운 예로 수동문 형성이 허용되지 않는 다음의 자유문의 예만 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3) a. *Max a ce livre.* (Max는 그 책을 갖고 있다)

¹⁸ 그밖은 수동문 형성이 불가능한 문장도 해당 명사구가 관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보어구등을 취하면 수동문이 가능케 되는 것도 역시 *autonomie référentielle*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i) **Querelle m'a été cherchée par Luc.* (Luc가 나에게 싸움을 걸었다)

ii) *Une querelle idiote m'a été cherchée par cet imbécile.* (그 바보가 나에게 바보같은 싸움을 걸었다)

b. *Ce livre est eu par Max.

문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동사¹⁹라고 한다면, 어떤 문장의 용법이란 동사 그리고 동사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명사구항(argument) 간의 관계로서, 간단히 말해 문장 축이 되는 동사의 용법을 일컫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동사의 용법은 크게 고유용법(emploi propre), 확대용법(emploi figuré), 속어용법(expression figée)등의 셋으로 나뉘볼 수 있다. 예를 들어

(84) a. Max a truffé la dinde de truffes de Pakistan. (Max는 칠면조에 Pakistan 송로를 채워넣었다)

b. Max a truffé son discours de plaisanteries. (Max는 연설에 농담을 많이 집어넣었다)

의 두 문장은 truffer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보여준다. (84a)는 truffer가 고유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이고, (84b)는 truffer 동사가 확대용법으로 쓰인 문장이다. 두 용법의 차이는 우선 직접보어 명사구의 분포적 특성(propriété distributionnelle)의 차이로 나타난다. 고유용법일 경우 직접목적어 위치에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오는 반면, 확대용법일 경우에는 직접목적어로 주어가 발표한 “말 또는 글”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 외에도 용법의 차이는 구문구조상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가령 고유용법인 (84a)文에서는 간접목적보어가 생략가능하지만, 확대용법인 (84b)문에서는 간접목적보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

(85) a. Max a truffé la dinde.

b. *Max a truffé son discours.

때로는 용법이 달라짐으로 해서 통사작용 상의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86) a. Max mérite la sucette. (Max는 사탕과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b. Ce problème mérite toute notre attention. (이 문제는 우리들의 온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의 문장 쌍은 mériter동사의 고유용법 (cf. (86a))과 확대용법(cf. (86b))을 보여준다. 이 두 문장에 Passif를 적용해 보면, (86a)는 수동문 형성이 가능하나 (86b)는 수동문을 갖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용법의 차이가 반드시 통사작용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두 문장은 :

¹⁹ 여기서 동사란 술사(prédicat)의 의미로 사용한 것임.

- (87) a. Max demande la sucette. (Max는 사탕과자를 요구한다)
 b. Ce problème demande toute l'attention. (이 문제는 모든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86a, b)와 마찬가지로 demander 동사의 고유용법(cf. (87a)) 및 확대용법(cf. (87b)) 문장이다. 그런데 mériter 구문과는 달리 (86a, b) 문은 모두 수동문을 허용한다.

이처럼 동사의 용법이 달라지면 해당 문장의 통사적 특성(분포 특성, 구문구조상의 특성, 변형규칙 적용상의 특성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고유용법과 확대용법이 분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어휘의 대치가 자유로운 자유문으로서의 용법이라면, 숙어문으로서의 용법은 앞서 지적인 바처럼 그 대치·변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는 동사의 또 하나의 다른 용법이다. 따라서 숙어문으로서의 용법에서 통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은 전혀 숙어문 특유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생각(idée)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그 생각을 표현할 새 어휘를 만들어 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억의 한계 및 노력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단은 기존 어휘와 규칙들을 조합,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숙어문을 단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한 의미단위(unité de sens)로서만 파악한다면, 가령 “/Max가 가난하다/”라는 의미로서의 Max est sur la paille라는 숙어문이 반드시 이러한 철자법(orthographe)으로 쓰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sur-la-paille라든가 surlapaille로 쓰인다 해도 아무 불편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la paille sur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숙어문에서 볼 수 있듯이 paille의 성은 자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으로 유지되며(sur le paille란 존재치 않는다), la paille sur 또는 la sur paille 등의 특이어순을 취하지도 않고, sur une la paille 같이 관사를 여럿 취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숙어문의 형성은 기존어휘의 문법적 특징 및 문법규칙을 존중하여 이루어진다.

일반 자유문의 단순 서술문(phrase simple déclarative)의 구문구조를 조사해 보면 자유문의 90% 이상이

X_0 V

X_0 V X_1

X_0 V Prép X_1

X_0 V X_1 Prép X_2

중의 한 방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숙어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건 자유문, 숙어문에 관계없이 모든 문장

은 반드시 이들 중의 어느 하나의 구조방식을 통하여 표현된다. “죽다”라는 의미 표현에 사용되는 다음 문장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

- X_0 V : Max est mort. (자유문)
 X_0 V X_1 : i) Max a cassé sa pipe. (속어문)
 : ii) Dieu a rappelé Max. (")
 X_0 V Prép X_1 : i) Max est parti entre quatre planches. (")
 : ii) La mort s'est emparée de Max. (")
 X_0 V X_1 Prép X_2 : i) Max a mangé les pissenlits par la racine. (")
 : ii) Dieu a rappelé Max à lui. (")

따라서 많은 속어문이 자유문과 동일한 문장구조를 갖고 있음은 오히려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개의 경우 속어문의 동사는 자유문에서의 통사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mettre 동사는 다음 자유문에서 ;

- (88) Max a mis de l'eau dans son verre. (Max는 잔에 물을 넣었다)

직접목적보어와 장소의 보어를 취하는데, 다음의 속어문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보어들을 취하고 있다 :

- (89) Ceci a mis du beurre dans les épinards de Pierre. (이것은 Pierre의 형편을 낫게 해주었다)

물론 동사의 구문 특성이 바뀌는 다음과 같은 예도 있다 :

- (90) a. Max a parlé à Pierre de Luc. (Max는 Pierre에게 Luc에 대해 얘기했다)
 b. La poudre a parlé. (무력을 사용했다)
 c. *La poudre a parlé à Napoléon.
 d. *La poudre a parlé de danger.

parler동사는 자유문 (90a)에서는 à 또는 de 전치사를 수반하는 간접보어를 취하는데 반하여, (90b)의 속어문에서는 간접보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앞서 truffer나 mériter의 예에서 지적하였듯이 용법의 차이에 수반될 수 있는 구문 특성의 자연스런 변화일 뿐이다.

동사의 여러 용법에 관련하여, 어느 것이 고유용법이며 어느 것이 확대용법인가, 즉 어느 용법을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용법의 차이에 따라 통사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다. 그런데 고유용법, 확대용법, 속어문이라는 세 가지 용법을 놓고 볼 때 이미 앞의 여러 예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구문구조상 또는 통사작용상에서 이 세 가지 용법을 구별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분포 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고유용법—확대용법—속어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성을 느끼게 된다. 속어문에서의 형태의 고정성, 결합의 제약이라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결합이 자유로운 *il y a X et X* 와 같은 속어문도 많이 발견되는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Bibliographie

- Boon, J.-P. (1971) 'Métaphore et baisse de la redondance,' *Langue Française* 11, Larousse, Paris.
- Daulos, L. (1981) 'La morphosyntaxe des expressions figées,' *Langages* 63, Larousse, Paris.
- Gross, M. (1980) 'Simple sentences,' rapport de LADL.
- _____ (1981) 'Une classification des phrases figées du français,' *Revue Québécoise de linguistique* 11. 2.
- _____ (1977) 'Une analyse non présuppositionnelle de l'effet contrastif-l'Extraction dans "C'est-Qu" et la négatio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1. 1, John Benjamins B.V., Amsterdam.
- Guiraud, P. (1961) *Les locutions françaises*, PUF.
- Kayne, R.S. (1975) *French Syntax*, The MIT Press.
- Picabia, L. (1983) 'Remarques sur le déterminant zéro dans des séquences en *il y a*,' *Le français moderne*, 1983, n°2.
- Ruwet, N. (1982) 'Du bon usage des expressions idiomatiques dans l'argumentation en syntaxe générative,' *Recherches linguistiques* 11, Université de Paris VIII.

ABSTRACT

En général, les phrases figées ou idiomatiques sont considérées comme exceptionnelles par rapport aux phrases libres, du point de vue syntaxique et sémantique; on disait que l'interprétation sémantique de la phrase figée ne se fait pas de la même manière que la phrase libre: dans la phrase figée, le sens des mots constituants ne permet pas d'induire le sens de la phrase.

D'autre part, la phrase figée serait caractérisée par des propriétés syntaxiques particulières: absence du déterminant dans le syntagme nominal(p. ex. rendre *justice*, avoir *maille* à partir avec), ordre des mots singulier, etc., et elle se comporterait de manière différente par rapport à plusieurs transformations syntaxiques comme le Passif ou l'Extraction.

Pourtant, si on examine un bon nombre d'expressions figées, on remarque que le critère pour distinguer la phrase figée de la phrase libre n'est pas bien établi; la plupart des expressions figées(90%) ont la structure N_0 $V(N_1)$ ((*Prép*) (N_2)) comme les phrases libres; et la contrainte que l'on rencontrait quand on essaie d'appliquer telle ou telle transformation n'est pas une contrainte spécifique pour les phrases figées, mais une contrainte générale qui est valable tant pour les phrases figées que pour les phrases libres: par exemple, indifféremment du type de la phrase, libre ou figée, on ne peut pas appliquer le Passif aux phrases dont le complément d'objet direct est coréférent au sujet. Même l'opacité dans l'interprétation sémantique varie considérablement selon les expressions en question.

Enfin, les phrases figées n'ont pas de spécificité syntaxique; en d'autres termes on ne trouve pas la marque d'idiomaticité explicite. On remarquera plutôt une certaine continuité entre divers emplois: emploi propre, emploi figuré et expression figée.

320-23

충북 청원군 강내면

한국교원대학교

불어과

(접수: 1986. 3. 18.)